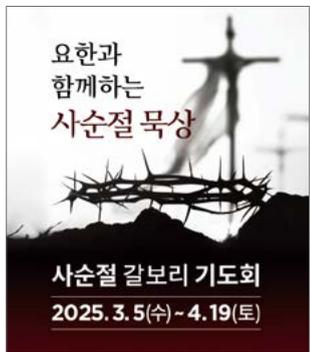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2025 남선교회 리더십 세미나 개최

3월 16일, 개체 선교회장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2025년 남선교회 리더십 세미나 및 직무교육이 3월 16일, 주일 3부 예배 후 남선교회총연합회 임원 및 연합회장, 교구장, 개체 선교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림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1부 순서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김정석 감독회장은 '어떤 모습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란 제목으로 성경적 원리의 지도자론을 강론했다.

첫째,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는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열심히 하면 나중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게 된다.

둘째,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하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고 그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한다. 넷째,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일관성을 유지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여섯째, 영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매사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세미나가 끝난 뒤 각 개체 선교회는 컨벤션홀에서 선교회를 개최했다. 임원들은 스테반, 디모데, 바울, 웨슬레 등 총 4개 그룹으로 편성하여 소속된 선교회장을 대상으로 각각의 센터장들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센터장들은 남선교회의 비전과 목표를 설명하고, 개체 선교회장의 사명과 책임에 대하여 교육했다. 또한 선교회를 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소소한 것들, 먼저 심방의 경우에는 전화 심방이나 대면 심방, 부진자 심방 시의 요령 등을 자세히 알려 주었다. 그밖에 모임

광고와 장소 선정에서부터 말씀 인도와 애찬에 관한 내용들, 또한 경조사 발생 시 대처, 새신자를 영입하기 위한 노력 등 개체 선교회 운영 전반에 대해 조언을 했다.

광림교회는 청년부와 청장년부를 거치게 되면 남선교회의 가장 젊은 층인 스테반선교회로 편입하게 되는데 52세까지 연령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어 60세까지는 디모데로, 70세까지는 바울, 그다음으로 81세까지 웨슬레에 속한다.

남선교회총연합회 회장 박기연 장로는 "광림교회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며, 교회 목회 방침에 순응하여 그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매년 리더십 세미나를 갖는 것은 기존의 직책을 그대로 맡은 사람들도 있지만 새롭게 연합회장, 교구장, 선교회장 등 직책을 맡은 임원들도 많다. 일반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이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듯이 새롭게 선교회 임원으로 임명받은 회원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직무교육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개체 선교회가 활성화되어 소속된 교구가 성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선교회의 발전과 나아가 광림교회가 부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특섭 기자



신령한 복을 누리며 찬송하는 자

“...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엡 1:3)

우리는 나름대로의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배운 지식과 삶에서 얻어진 지혜와 경험들이 나의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되어 나의 기준으로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기준을 살아가야 할까요?

에베소 지역은 학문의 도시, 항구의 도시, 무역의 도시로써 상업을 통한 물질을 중요시 여기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세속의 문화가 삶의 자리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에베소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바울이 2천 년 전에 살았던 세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한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도 바울은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하며,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바울이 변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영원한 복, 곧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복은 다름이 아닌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로마에만 600만 명이 넘는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노예들을 보면서 바울은 자유를 잃어버린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에서 육신의 노예보다 더 비참했던 것은 영적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 영원히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죄의 결과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모든 걱정과 두려움,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힘이 들어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우리의 인생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을 누리며



에베소서 1:3~14

3.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1)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8.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1.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그 안에서 너희도 2)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3)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이는 우리 기업의 4)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고난과 고통이 은혜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고난과 고통의 문제일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4절).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롬 8:32). 우리를 위해 모든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곧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흠과 티도 없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대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셋째, 찬양의 자리를 소망해야 합니다

바울은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엡 1:6). 바울은 자신이 꺾박과 박해를 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감옥에 갇혀 살 소망이 끊어진 고통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삶의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찬양해야 할까요?

첫째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드러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의미있고 가치있는 인생으로 살아달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천국 소망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신 소망을 믿고 고난과 고통,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할 길 잘했지. 내가 너를 불러서 내 자녀 삼기를 잘했지”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불평과 원망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독회장 김정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감독회장의 설교는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 및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광림교회 주일설교를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중한 약속, 아름다운 사명

4월 한 달 동안 영혼 구원 위한 기도회와 다양한 행사 열려

복음 전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약속이며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아름다운 사명이다. 상대방의 마음 문을 열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4월 한 달 동안 광림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은혜로운 초대에 모든 성도가 힘을 모아 총력전도로 힘쓰게 된다. 성도들은 전도를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길 기도하고 있다. 각 선교구에서는 다니엘기도회로 모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초청 카드와 선물을 마련해 교회에 친근하게 발걸음 할 수 있게 돕는다.

프레시온전도학교도 진행 중이다. 3월 22일부터 4주간 매주 토요일 김현우 목사의 강의로 진행하고 있다.

많은 성도가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전하는 전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전도자의 자세를

배우고 전도 훈련에 동참한다. 또 개인적인 관계전도의 길로 나아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돕는 교육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부활절예배

4월 20일(주일)은 부활절예배를 드리고 이날 오후 4시에는 광림교회 본당에서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로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눈다. 4월 매주일 저녁예배에는 특별 간증의 시간을 마련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의 삶의 변화를 증거하는 시간을 갖는다.

바자회, 전교인 체육대회

전도와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4월 22일(화) 여선교회총연합회 주관으로 밀레니엄광장에서 진행된다. 4월 26일(토)에는 한양대학교 체육관에서 남선교회총연합회 주관으로 전교인 체육대회를 열어 새가족과 온 성도가 화합하는 기쁨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

총력전도주일

4월 27일은 총력전도주일로 광림교회가 한

마음으로 복음 전도에 힘쓰는 귀한 날이다.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초청의 기회로 삼을 때 한 영혼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

목회선교지원실과 문화홍보실에서는 교회 안내와 복음이 담긴 전도지와 전도 용품을 제작해 각 선교구에 배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아 주심을 주제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모든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소현수 기자



포토 뉴스



사순절 같보리 기도회
4월 19일(토)까지 새벽 5시 벨앨성전, 6시 나사렛성전에서 열리고 있다.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
사회사업위원회는 '사랑의 동전 모으기'에서 받은 외국 동전과 지폐를 월드비전에 전달했다.



감람동산 합동추모예배
4월 5일(토) 오전 10시 감춘광림교회에서 합동추모예배가 열린다.

감독회장 동정



- 3/16 남선교회 리더십 세미나 및 직무교육
- 3/23 광림복지재단 이사회
- 3/25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 3/26 수요치유의 신학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2025 중보기도자 임명예배



중보기도위원회(위원장 김도옥 장로)는 지난 3월 20일(목) 오전 10시 광림교회 본당 대에 배실에서 <2025년 중보기도자 임명예배>를 드렸다. 찬양과 기도로 시작된 중보기도자 임명예배에는 300여 명의 중보기도자와 교역자가 참석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의 '존 웨슬리의 중보기도(딤후 2:1-4)라는 말씀 후 중보기도자에 대한 임명식이 있었다.

조성한 목사(목회행정기획실)는 본당 7개 조, 광림남교회, 광림북교회, 동탄교회 대표로 나온 10명의 각 조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 참석한 중보기도자들의 서약식이 있었다.

광림교회 중보기도팀은 본당 7개 조, 광림남교회, 광림북교회, 광림동탄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중, 철야, 주일예배 중보기도자로

나뉘어 섬기고 있다. 중보기도팀은 하루 한 조씩 시간별로 1~4명이 팀을 이루어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1시간 30분씩 기도하며, 자정부터 새벽 4시 30분까지는 담당 전도사와 조장이 한 사람씩 돌아가며 철야 기도를 한다.

주일에는 1부 ~ 4부 예배까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가 은혜받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한다.

조성한 목사는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여기 300명이 넘는 용사가 계시기에 우리나라엔 소망이 있고, 열방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며, 광림교회는 더욱 부흥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승리자가 되시길, 끝까지 무시로 기도하시는 중보기도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라고 했다.



김도옥 장로는 "중보기도자 임명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는 감독님, 사모님, 모든 교역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가 가장 큰 능력임을 믿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중보기도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와 열방, 한국교회와 광림교회, 감독님과 교우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중보기도실은 본당 1층 중앙 통로 끝에 자리 잡고 있다. 중보기도를 원하는 성도는 중보기도실 앞에 비치된 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을 정자(正字)로 작성한 후 중보기도 요청함에 넣으면 중보기도자들이 정성을 다해 기도한다.

중보기도 요청 및 문의: 02-2056-5639

박희운 기자

실업인선교회

AI, 시대적 선교 도구로 활용 기대해

비즈니스, 사회, 교육 분야에 사용되는 ChatGPT



지난 3월 9일(주일), 광림교회 실업인선교회(위원장 안경섭 장로)는 'Empowering Your Business with ChatGPT'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하였다. 이번 강연은 AI 활용의 실제적 사례를 중심으로 비즈니스와 사회, 교육 분야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조명하며 성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강연은 어썸에이아이닷아시아(Awesome AI.asia)의 공동대표인 무라타 아키라(Akira Murata) 교수가 맡아 영어로 진행되었고, 통역은 같은 공동대표이자 광림교회 실업인선교회 회원인 김웅세 집사가 맡았다. 무라타 아키라 교수는 현재 일본 지바경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일본국

제협력기구(JICA)와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컨설턴트로도 활동한 적이 있다. AI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세계적으로 알리며, 영국, 태국, 몽골, 파키스탄 등의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해왔다.

김웅세 집사와 무라타 교수는 2000년대 초 영국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후 20여 년간 우정을 이어왔으며, AI 리터러시 확산이라는 공동의 사명을 가지고 2025년 어썸에이아이닷아시아를 함께 설립하였다.

이날 강연에서는 ChatGPT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 전략적 경영, 고객 응대, 사회 및 교육 분야의 영향력 증대 등의 사례가 소개되었고, 특히 중소기업과 실무자들이 직접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내용이 중심이 되었다. 예

를 들어, 맞춤형 이메일 작성, 블로그 및 SNS 콘텐츠 생성, AI 챗봇을 통한 고객 지원, 시장 분석 자동화 등의 구체적인 도구와 기법이 설명되었다.

또한 AI를 활용한 교육 분야의 사례로 '개인 맞춤형 경제 과외 도구미(Chatbot TA)와 유니세프(UNICEF)의 글로벌 AI 교육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관심을 받았다.

어썸에이아이닷아시아는 앞으로도 교회 및 선교회와 연계하여 AI 리터러시 확산에 힘쓰고, 중소기업과 개인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강연을 통해 참석자들은 단순한 기술

소개를 넘어, AI가 어떻게 신앙 공동체와 비즈니스 현장에서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다. 특히 AI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 도구로써 어떻게 선용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실업인선교회는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신앙적 통찰과 실용적 도구를 접목시킨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성도들의 삶과 일터를 지원하고자 한다. 이번 강연은 그 첫걸음으로, 기술과 신앙이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귀한 자리가 되었다.

유병권 기자

4월은 복음전도의 달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15)

New Life! New Joy!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청년부

열정과 복음이 함께한 순간

LFC 클레시스 컵 교구별 축구대회



연합과 교제를 위한 축구 리그

3월 3일(월), LFC 축구선교팀 클레시스에서 주최한 클레시스 컵 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이번 대회는 청년부 교구별 팀이 리그 방식으로 경기를 펼쳤으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축구를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경기 전후로 드린 예배를 통해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청년들은 승패를 넘어 함께 뛰고 응원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다

이번 대회는 준비 과정에서부터 많은 도전을

마주했다. 구장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현대고등학교 구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하셨다. 또한, 대회 당일 아침까지 내리던 비로 인해 일정이 취소될 수도 있었지만, 경기 시간이 되자 하늘이 맑아졌고, 청년들은 좋은 날씨 속에서 마음껏 뛰며 경기를 즐길 수 있었다.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예비하셨음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다.

축구를 통한 복음의 통로

이번 대회는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전도의 장이 되었다. 한 청년은 "평소 교회에 가지는 친구의 권유가 부담스러웠는데, 축구하러 간다고 하

니 편하게 올 수 있었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이번 주일에는 광림교회에서 예배도 드려보고 싶다"라며 긍정적인 마음을 전했다.

클레시스 박상욱 팀장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에 복음이 심어지고, 청년부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다. 청년들이 함께 믿음을 나누고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 후에도 계속될 청년들의 걸음

클레시스 컵 대회는 단순한 체육 행사가 아

니라, 청년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무엇보다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다.

청년들은 함께 달려서 서로를 응원했고, 그 속에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었다. 스포츠를 통해 시작된 연합이 신앙의 걸음으로 이어지고, 그 걸음이 또 다른 복음의 기회가 될 것이다.

황시연 전도사(청년부)

청장년부

봄 영성 기도회 '네 마음을 기경하라'



지난 3월 16일(주일) 청장년부(위원장 신범식 장로)는 '네 마음을 기경하라'라는 주제로 사회봉사관 컨벤션홀 4층에서 봄 영성 기도회를 진행하였다.

청장년부 영성 기도회는 1년에 총 4차례, 계절에 맞춰 개인 기도 제목과 공동 기도 제목 그리고 특별 중보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의 영성 훈련을 위해 마련된 시간이다.

이번 집회에서 황지수 목사(청장년부)는 '네 마음을 기경하라'는 제목을 통해 말씀으로 살아야 할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

한 이유를 비유로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본문 속에서 찾았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와 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기경, 즉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설교 후 지체들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이후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봄 영성 기도회는 개인과 직장 그리고 관계를 위하여, 가족과 가정을 위하여, 교회와 청장년부의 부흥을 위하여, 4월 총력전도와 5월 몽골 선교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특별 중보기도의 시간으로 함께 기도했다.

마지막 기도 순서는 중보기도 시간으로 금동회 형제와 이승곤 형제가 앞으로 나아와 참석하신 모든 지체들에게 자신들의 기도제목들을 나누었다.

많은 이들 앞에 나와 자신의 기도를 나누는 것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다.

특히 두 형제 모두 부모님의 건강과 관련하여 중보기도를 요청하였는데, 부모님을 위

해 기도 제목을 한 줄 한 줄 읽어가는 중간 형제들이 흘린 눈물이 함께했던 모든 지체들에게 감동되었고, 그 마음 하나 하나가 모여 전심전력을 다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후 성찬을 통해, 기도회에서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모든 이들이 결단하였다. 황지수 목사는 파송의 메시지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과 유혹이 있지만, 나를 살리는 것은 세상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세상으로 파송하는 시간을 끝으로 모든 기도는 마무리되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청장년부의 지체들은 분주한 삶을 잠시 내려놓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고, 눈물로 고백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되는 귀한 시간을 경험했다.

한준구 전도사(청장년부)

목회현장

어두운 땅에서도 복음의 씨앗은 자란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롬 8:24-25)

2022년 2월 24일에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3년이란 시간을 지나 지금 2025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긴 시간 동안 러

시아 현지의 상황은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고 사업 축소 또는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작년 우리 모스크바 광림교회 또한 한인 성도들의 이동이 많아졌고 결국 본국으로 귀임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서 출석 성도수가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목회와 선교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면했습니다.

그러던 올해 3월 어느 날, 지난겨울 동안 내린 눈이 차츰 다 녹아 땅이 보이고 봄의 햇살이 대지를 비출 때 교회 마당 잔디밭 위로 수줍은 듯 고개를 내민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심히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들은 겨울 동안 어두운 땅속에 있다가 봄의 따스한 기운을 머금고 깨어난 아주 어린 새싹들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을 보내며 모든 식물들이 땅속에서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

두운 땅속에서도 작은 씨앗은 생명을 간직하며 다시 피어날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싹은 겨울을 지나고 봄이 오면 나타나는 생명의 징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절망 가운데서도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스크바 광림교회는 비록 3년이란 시간 동안 바뀐 것도 없고 전쟁도 계속되는 어두운 상황에 놓여있었지만 현실과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이를 능히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키워왔습니다.

모스크바 광림교회는 매주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주중에는 성경공부와 평신도 지도자 교육을 진행하며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 영성 훈련을 합니다. 속회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붙잡아주는 나눔과 기도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선교의 현장에서는 지역 사회를 섬

기며 나 홀로 생활함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모셔 의료 선교를 진행했고, 광림 선한나눔운동의 일환으로 고아원과 알코올 마약 중독자 센터, 난민 시설, 고령인 교회 등을 방문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비록 지금 현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러시아 땅이지만 이 속에서도 복음의 씨앗은 계속해서 뿌려지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계속해서 자라 차갑게 식은 러시아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복음의 불꽃이 될 줄 믿습니다. 모스크바 광림교회를 위해 함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실 주님과 함께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광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용상 목사(모스크바 광림미션센터)

광림남교회

선교회 포토제닉



모이기 힘쓰는 선교회의 일환으로 연초부터 시작하여 두 달 동안 선교회 포토제닉을 실시하였습니다. 모든 개체 선교회가 은혜로운 선교회 현장을 사진에 담아 알리고, 더욱 풍성한 모임이 되도록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해 동안 기억에 남을 사진이다 보니 평소 참석하지 못했던 회원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렸습니다. 특히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사진을 찍으며 선교회원들의 신앙과 열정을 사진으로 표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느 선교회는 마치 두란노서원에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의 열정을 드러내며 에베소의 셀수스도서관을 배경으로 편집하여 사진을 출품했고, 또 다른 선교회는 광림수도원의 설경을 배경으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두 달 동안 진행된 포토제닉은 단순히 사진을 찍는데 그치지 않고, 선교회원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졌으며 서로의 기도 제목과 교제를 나누는 등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극과 권면도 되었습니다.

3월 16일(주일), 대예배실 입구에 대형 전시관을 설치하여 대예배실에 들어가고 나가며

한 분씩 스티커를 붙여 점수를 매겼습니다. 사진을 보며 서로 자신의 선교회 자랑도 하고 칭찬과 격려로 더욱 즐겁고 행복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 2부·3부 예배에 모든 사진들을 영상으로 엮어 시청한 후 각 선교구 별로 시상하였는데, 최우수상은 52-2마리아, 54-4루디아선교회가, 우수상은 51-7루디아, 53-5에스터선교회가 수상하였고 미안마, 캄보디아 형제들로 구성된 외국인선교회가 인기상을 차지했습니다. 기념 촬영과 선물을 증정하고 성도들의 축하와 박수로 선교회 포토제닉을 마쳤습니다.

전시회와 함께 시상식이 더해져 선교회 모임에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참여한 모든 분들은 선교회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상기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선교회 포토제닉은 앞으로 남교회의 연례행사로 자리 잡아, 모이면 기도하고 흠어지면 전도하는 선교회원들의 모습을 담을 뿐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남교회 모든 개체 선교회는 선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며 온 땅 가득히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목도할 것입니다.

윤사무엘 목사(광림남교회)

광림북교회

흑백 반찬 요리 대회



지난 3월 22일(토) 광림북교회 2층 루체포레에서 스테반, 디모데선교회원들이 모여 '흑백 반찬 요리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한 OTT 프로그램 중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요리에 대한 관심이 부쩍 올라간 요즘, 스테반, 디모데 남성들이 요리 실력을 뽐내기 위해 흑백 반찬 요리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새롭게 71교구 스테반선교회 회장이 된 김건호 집사는 뛰어난 요리 솜씨로 가정에서 사랑받는 남편으로 북교회에서 소문이나 있습니다.

김건호 집사의 아이디어를 통해 스테반, 디모데선교회원들을 토요일 교회로 모이게 해서 요리라는 주제로 함께 교제하고, 선교회원들의 가정 주말 식사를 책임져서 가정에도 이바지하시는 취지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선교회원들은 메추리알 장조림, 멸치볶음, 잡채, 제육볶음, 해물과전 등 다양한 반찬을 만들었고, 각자 집에서 공수해 온 조리 도구와 신선 식재료를 통해서 남자들이 한 요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반찬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선교회 모임에 어색해서 참여하지 못한 회원들과 새가족들이 자연

스럽게 선교회원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고, 무엇보다 아내되는 마리아 선교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독려가 있어서 모임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리 대회에 참여하지 못한 선교회원들 가정에 반찬을 배달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흑백 반찬 요리대회에 참가한 이민재 집사는 “스테반, 디모데선교회원들의 요리 솜씨가 이렇게 뛰어나고, 요리에 대한 열정과 깊은 지식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한 주 내내 일터에서 시간을 보내느라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었는데, 맛있는 반찬을 집에 가져가니 가족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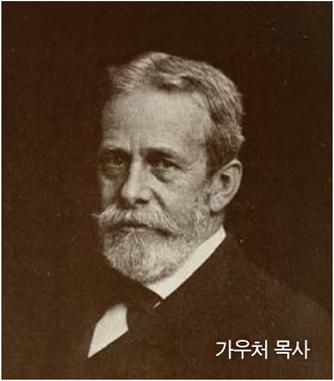
광림북교회 스테반, 디모데선교회는 교회 곳곳에서 알토란 같은 봉사와 헌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흑백 반찬 요리 대회는 선교회원들의 교제와 단합을 통해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선교회, 아내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선교회 모임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동기를 마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가 전도사(광림북교회)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선교의 역사 1



가우처 목사

1832년 최초로 한국 선교를 시도한 귀츨라프(Karl Gützlaff) 선교사를 비롯해, 1866년 영국 웨일즈의 토마스(Robert Jermain Thomas) 선교사가 조선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으며 1872년 존 로스(John Ross)와 존 맥킨타이어(John MacIntyre) 선교사가 의주 상인들을 만났고 이들 중에 최초의 개신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

다. 의주 출신 조선인들은 선교사를 도와 성경 번역에 참여해 1881년 10월 예수성교문답과 예수성교요령이 간행되었고 1882년에는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 요한복음전서가 간행되었습니다. 선교의 역사는 인간의 계획이나 세계정세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들이 내한하기 전부터 조선의 문을 두드리며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19세기 후반, 조선은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혼란과 외부적으로는 열강의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권력이 소수의 가문에 집중되며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으며,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민란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던 시기 서구 문물의 도입을 둘러싸고 개화파와 수구파가 대립했으며,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통해 일본이 조선의 문호를 강제로 개방했습니다. 이후 일본의 정치, 경제적 개입이 증가했습니다. 서구 열강(미국, 영국, 프랑스 등)도 조선과의 무역과 외교 관계를 원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

다. 1880년, 조선 정부는 청나라의 조언을 받아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882년 5월 22일, 조선과 미국은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영국(1883년), 독일(1883년), 프랑스(1886년) 등과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미국 선교사들의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개신교 선교(특히 감리교회와 장로교회) 활동의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1883년 푸트(L. H Foot)가 미국의 초대 공사로 파견된 것에 대해 고종 황제는 답례로 민영익을 단장으로 한 보빙사절단(報聘使節團)을 미국에 파견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사절단이 미국의 체스터 아서(Chester Arthur) 대통령을 면담하기 위해 대륙횡단 열차를 타고 여행하던 중 가우처(John F. Goucher) 목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우처 목사는 사절단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조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 두 달 후 선교사 파송을 위한 현금(2,000 달러)을 했습니다. 또한 일본에 있던 매클레이(R. S. Maclay) 선교사가 조선을 방문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여행경비를 후원하였고, 1884년 6월 24일 조선을 방문한 매클레이 선교사가 고종 황제

의료와 교육 분야에 한해서 선교를 허락한다는 윤허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당시 중국에 머물던 알렌(Horace N. Allen)은 미국공사관 담당의사의 자격으로 1884년 서울에 들어왔으며, 그 다음해 감리교회의 첫 번째 조선 선교사로 스크랜턴 대부인(Scranton, Mary F.), 아들인 윌리엄 스크랜턴(Wm. B. Scranton), 그리고 교육 선교사로 헨리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를 파송하게 됩니다.

장로교회는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를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하였고 아펜젤러 선교사와 같은 날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권순정 목사



보빙사절단

새가족 정착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새가족위원회 위원장 - 한상국 장로



새가족위원회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이끄는 마중물이자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새로운 성도들이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고 교회 공동체에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봉사자들의 사명이다. 지난 16년간 새가족을 위해 헌신한 한상국 장로를 만나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보았다.

새가족위원회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광림남교회에서 청년부장으로 섬기며 청년들과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던 중 은퇴하

신 고양식 장로께서 새가족위원회 총무로 와달라고 권유하셨어요. 처음에는 주일 예배 후 새가족 교육만 담당하는 단순한 역할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새가족의 정착을 돕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각 교구별 위원을 선정해 새가족을 1년간 섬기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교회에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세심하게 돕고 있습니다.

새가족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역할은 무엇인가요?

새가족위원회는 영접팀, 교육팀, 양육팀, 속회팀으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영접팀이 새가족을 따뜻하게 맞이하면, 교육팀이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양육팀과 속회팀이 각 교구에서 속회 정착을 책임집니다. 매주 전도사님과 위원들이 소통하며 새가족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도록 관리하고, 분기별 행사로 새가족을 초대해 목사님, 사모님과 관계를 맺고,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죠. 모든 과정에서 새가족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교회에 정착하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서 느끼는 보람과 어려움이 있다면?

가장 큰 보람은 새가족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순간입니다. 영접한 뒤 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보면 하나

님의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22교구에 속장이 없던 때, 한 새가족을 위해 토요일 속회를 열었는데, 그분이 바쁜 와중에도 약속을 지키며 신앙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새가족의 믿음에서 배우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려움도 있어요. 저는 강의 때문에 평일은 지방에 있어야 하는데,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에 서울로 오다 보니 새벽기도나 평일 예배 참석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기쁨으로 섬기고 있어요.

새가족위원회가 꿈꾸는 교회의 미래 모습은?

새가족위원회가 교회 부흥의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양적 성장의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오는 이들을 잘 섬겨 질적으

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주 기도회와 전도사님, 한정희 사모님과 협력해 통해 새가족이 신앙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새가족 정착은 교회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생각하기에 교회에 오는 이들을 잘 섬겨 정착시키는 관리 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기업 교육 전문가, 교수로 이어진 커리어가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위해 준비하신 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새가족실은 교회 부흥을 위한 사명을 실현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새가족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교회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며 보람과 가치를 느낍니다.

봉사문의: 심재필 권사(010-8940-8287)

한혜선 기자





한눈에 명화로 보는 구약성경 이야기 9



이삭과 이스마엘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창 21:6)

사라는 아브라함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 못했다. 사라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인 여종이 있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삼을 것을 종용했고,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서자인 이스마엘을 얻었다. 그런데 하갈이 사내아이를 낳자,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한 사라는 무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도 뒤늦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 아들은 바로 ‘웃음’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삭이었다. 희망을 잃은 상태에서 뒤늦게 태어난 아이였으므로,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행복 그 자체였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은 즐겁게 놀며 우애 좋게 지냈다. 이복형제인 둘은 서로 다투기도 했지만, 그런 다툼은 즐거운 장난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사라는 이런 일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 사라는 하갈보다 나이가 매우 많았고, 외모도 하갈을 따라가지 못했다. 게다가 하갈은 아브라함의 애정에 기대어 사라는 무시했다. 그래서 사라는 하갈을 제거하고 그녀가 가진 권리도 모두 빼앗고 싶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이 위험하므로 그들을 멀리 보내라고 종용하였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스마엘 역시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처사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라의 의지는 매우 단호했고,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의 소원을 들어주라고 말씀하셨다.

결국, 그렇게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모진 고생 끝에 나일강 근처의 고향에 도착했다. 이후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에서 ‘활쏘는 자가 되었고, 이집트 여인과 결혼했다. 이스마엘은 후에 이슬람 문화를 일으킨 조상이 된다.

이삭의 희생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 22:2)

아브라함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으며, 자신이 가진 정의와 믿음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다시 한 번 시험해 보기로 하고, 그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 쫓겨나는 하갈과 이스마엘_아브라함은 사라의 종용과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았다. 카스파르 네츠허트 작품

사라의 유일한 아들이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에 아무 망설임도 없이 바로 실행하였다. 그는 하인 두 명에게 짧은 여행을 준비하라고 명령한 후 당나귀 등에 장작을 싣고, 물과 식량을 준비하여 사막으로 향했다. 물론 아내 사라에게는 행선지를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이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은 즐거운 여행이라고 생각했고, 사흘 후 모리아 산에 도착했다. 아브라함은 하인들을 산 아래에서 기다리라고 한 후에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이삭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본적이 종종 있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제단도 있었고, 장작도 있었다. 제물로 바칠 양을 죽일 때 사용하는 칼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양이 보이지 않았다. 궁금했던 이삭은 아버지에게 이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말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의 거친 돌 위에 올라가라 하고는 칼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이삭의 머리를 잡고는 칼을 높이 쳐들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 이삭의 희생_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이를 말린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나님밖에 없는 네 아들마저도 내게 바치려 하였으니, 나는 너에게 축복을 내리리라. 너의 자식의 자식들이 하늘의 별만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 땅 위의 모든 민족이 너를 기억하게 되리라”라며 축복한다. 티치아노 작품

“아브라함아,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그만두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충성스럽다는 것을 알았고, 더는 믿음의 증거를 강요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에 이삭은 곧바로 일어났고, 근처의 수풀에 빨이 걸려 꼼짝 못 하던 커다란 양을 잡아 이삭 대신 제물로 바쳤다.

사흘 후 아브라함과 이삭은 사라에게 돌아왔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여러 가지 불행을 안겨준 이 땅이 싫어졌다. 그 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서쪽에 처음 도착했을 때 살았던 마르레의 오래된 평원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집을 지었다. 그 과정에서 나이가 많았던 사라는 힘든 여정을 견디지 못하여 죽고 말았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히타이트 족인 에브론에게서 40세겔을 주고 산 막벨라 굴에 묻혔다.

* 문의 : 빛의 숲 서점 (02-2056-5771)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